

한국양봉농협 소식 및 동정

☞ 세계양봉대회 참여

한국양봉농협의 총사업물량이 8,960억 원으로 19.4% 성장하였으며, 올해 영업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3,689백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 사업비를 1,516백만 원으로 편성하여 34.6% 상향조정하여 확정하였습니다.

☞ 조합원 영농자재 지원

한국양봉농협은 이동이 많은 조합원을 위하여 조합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7인치 네비게이션을 구입, 조합사업이용이 100만원 이상인 조합원 959명에게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토봉업자들 "토종꿀 취급규제 완화하라"

토종꿀 생산농민들이 농협의 토종꿀 취급기준 강화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토봉협회 회원 등 토봉업 종사자 300여 명은 11월 28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앞에서 '토종꿀 채취 농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최근 농협이 토종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시작하면서 판로가 막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일부 토종꿀 제조업자들이 설탕물 등을 이용한 꿀을 생산해 이른바 '설탕꿀'이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시위 농민들이 꿀을 경찰들에게 투척하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